

측지선 (A GEODESIC LINE)

참여 작가	김상소, 윤혜진, 허수연
협력 큐레이터	맹나현
전시 기간	2024 년 8 월 22 일 - 9 월 28 일 (프리뷰 오픈 8 월 21 일)
장소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 층)
개관 시간	화-토 11:00 - 18:00 (일, 월 휴관)
주최, 주관	FIM

전시 내용

2024 년 8 월 한남동 유엔빌리지 초입에 문을 연 FIM 은 개관전 《측지선(A Geodesic Line)》을 선보인다. 휘어진 공간 안에서 산출 가능한 가장 짧은 거리를 의미하는 측지선은 여러 변수와 해석 가능성에 따라 다양한 방정식을 지닌다. 전시 《측지선(A Geodesic Line)》은 세 명의 작가 김상소, 윤혜진, 허수연과 함께 완만한 곡률과 상상력의 한계로 발견할 수 없었던 구부러진 땅으로 나서보기를 제안한다. 이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 장면을 재조합하거나 의도적으로 화면을 흐릿하고 두텁게 만드는 물리적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화면을 통해 심리적 거리감을 형성하고 시공간을 뒤섞는 등 비물리적 요소들의 경계를 넘나들며 도출된다. 전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절대적 실체를 둘러싸고 있는 우회적인 방법들을 목격하고 세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감각하기를 시도한다.

김상소(b.1996)는 만화나 소설, SNS 등에서 본 이야기나 현실 속에서 발견한 장면을 드로잉으로 수집한 후 한 화면 위에서 이를 다시 재조합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작가는 여러 시공간에서 발췌한 장면을 직관적으로 연결하거나 분할시키면서 일반적인 서사적 맥락을 해체하고, 회화의 확장성을 실험한다. 윤혜진(b.1994)은 지나간 장면을 흘트려 구체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흐릿한 풍경을 그린다. 작가는 이미 사라졌거나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정면으로 마주하기 두려운 기억의 이미지를 지우고 의도적으로 흐릿한 시야를 만들면서 선과 선 사이, 화면의 낯선 틈새에 자리 잡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 허수연(b.1993)은 현실에서 파생된 장면을 다루는 두 작가와 달리,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을 여러 겹의 레이어 속에 감추어 표면 위로 드러낸다. 한지 위에 종이죽을 덧붙이며 구체적인 대상을 모호하게 만드는 작가의 작업 방식은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현실의 존재와 그에 따른 내재적 불안감을 이미지화한다.

공간 소개

작품으로의 완전한 몰입 상태, 'Free Immersion'을 의미하는 FIM 은 국내외의 역량 있는 젊은 미술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객들에게 깊이 있는 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우리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잠재력 있는 작가들의 실험적인 시도와 성장을 함께하며, 해외 갤러리 및 큐레이터와의 협력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높은 수준의 전시를 선보이기 위해 꾸준히 연구할 것이다.

전경 및 대표작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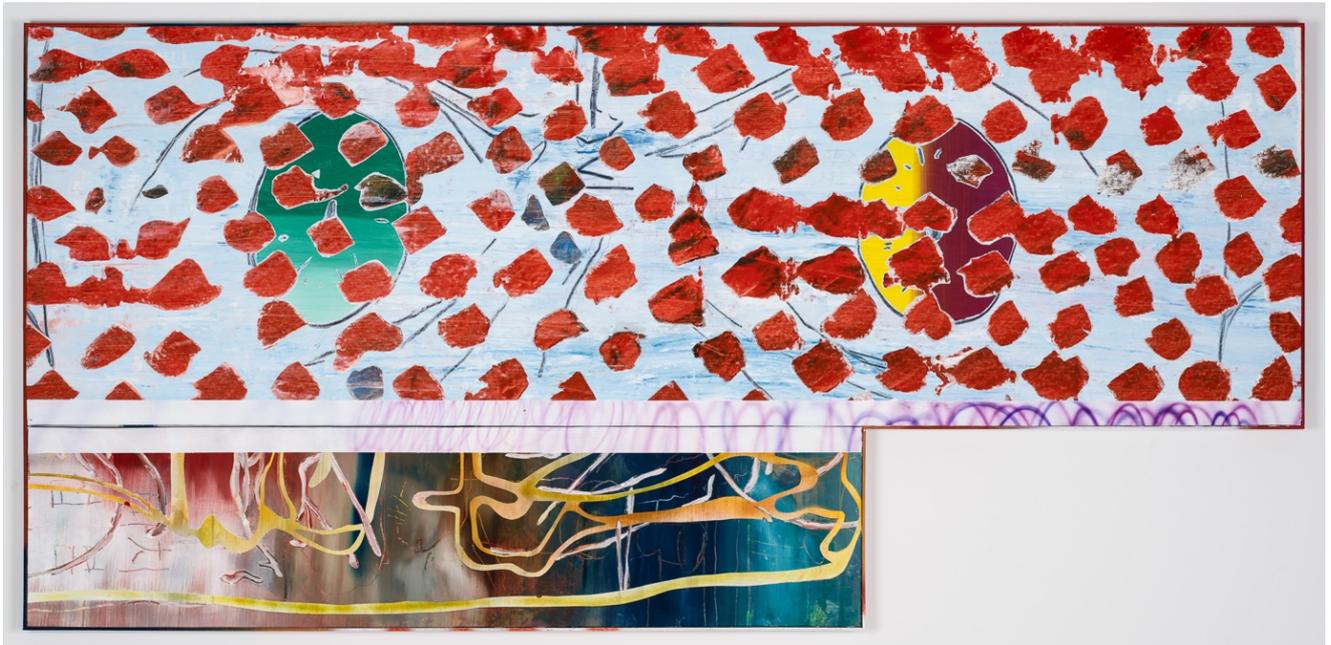
전시 전경, 《측지선(A Geodesic Line)》, 2024
사진 홍철기, 이미지제공 FIM



전시 전경, 《측지선(A Geodesic Line)》, 2024
사진 홍철기, 이미지제공 FIM



전시 전경, 《측지선(A Geodesic Line)》, 2024
사진 홍철기, 이미지제공 FIM



김상소, "이상한 걸 발견했어!" 재미굴. "I found something strange!" The ant cave., 2023-24
oil, acrylic spray on wood, 72 x 153 cm
사진 홍철기, 이미지제공 FIM



윤혜진, *한 낮* *Waiting position*, 2024, oil on canvas, 112 x 194 cm
사진 홍철기, 이미지제공 FIM



허수연, *당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You don't know anything*, 2024
oil painting on hanji with paperpaste, 140 x 200 cm (148.8 x 209 x 5.1 cm framed)
사진 홍철기, 이미지제공 FIM

전시 서문

구부러진 땅 위 모서리

“사유하지 않으면 흔히 통용되는 클리셰를 옮기는 매개체가 되기 십상이거든요.
상당히 계몽된 형태의 클리셰라 하더라도 말이지요.”¹

의심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익숙함에서 발견되는 지각은 맹목적이다. 누군가는 공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뜻밖의 발견을 희망하지만, 늘 그렇듯 우연의 순간은 오묘하고 번덕스러워 우리의 접근을 의도적으로 피해 가는 듯하다. 구불구불한 곡선 위에 두 발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진리는 의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장면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평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자주적으로 모난 길을 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측지선 (A Geodesic Line)》은 세 명의 작가, 김상소•윤혜진•허수연과 함께 완만한 곡률과 상상력의 한계로 발견할 수 없었던 구부러진 땅으로 나서보기를 제안한다. 측지선은 휘어진 공간 안에서 산출 가능한 가장 짧은 거리를 의미하는데, 직선과는 달리 여러 변수와 해석 가능성에 따라 이를 계산하기 위한 다양한 방정식이 존재한다. 측지선의 결핍값은 하나로 도출되지만, 그 답을 찾아 나서기 위한 과정은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을 따른다.

본 전시에 참여한 세 명의 작가는 각자 마주한 장면과 사건에서 파생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을 택했다. 이들은 곧은 직선을 그어 최단 거리를 모색하지 않고, 여러 위치의 꼭짓점을 연결해 곡선을 그어 가며 그들만의 묘안을 찾아 나선다. 그 과정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 장면을 재조합하거나 의도적으로 화면을 흐릿하고 두텁게 만드는 것처럼 물리적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화면을 통해 심리적 거리감을 형성하거나 시공간을 뒤섞는 등 비물리적 요소들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에 도출되기도 한다.

김상소는 만화나 소설, SNS 등에서 그가 본 이야기나 현실 속에서 발견한 장면을 드로잉으로 수집한 후 작가의 직관에 의해 한 화면 위에서 이를 다시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현실에서 파생된 입체적 장면은 드로잉을 통해 평평해진 후, 회화 작업이 되어 다시 무게감을 갖는다. 작업의 형식은 일정 부분 만화나 소설, 영화 등의 이야기 전달 방식을 따르는 듯하지만, 여러 시공간에서 발췌한 장면이 작가의 직관적 판단에 의해 한 화면 위에서 무작위로 조합되는 순간, 일반적인 서사적 맥락은 해체된다.

그의 작업은 얼핏 보면 조각난 듯 보이지만, 장면과 장면 사이를 무작위로 연결하며 결속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선택의 순간, 순간적으로 발현과 수용의 과정을 거친 작가의 감각은 지나간

¹ 수전 손택, 조너선 쿛, 김선형 옮김, 『수전 손택의 말』, 마음산책, 2015, 26 쪽.

시간과 지나친 공간을 서로 충돌시키거나 감싸 안으며 관습적 의미를 벗어난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형상을 만들어 내며 기존의 의미와는 다른 맥락을 형성한다. 이는 분명 이야기가 아닌 그리는 행위가 앞선 현존하지 않던 맥락이다. 현실 혹은 실재하는 이야기와 함께 출발한 그의 그림 속 파편들은 현재의 시간, 그 전과 후, 그리고 장면의 사이까지 떠올리고 상상할 수 있도록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²

반면, 윤혜진은 지나간 장면을 의도적으로 흐트려 구체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흐릿한 풍경을 그린다. 작가는 정면으로 마주하기 두려운 순간을 직시하기 위해 비스듬히 보는 방법을 택했다. 이 방법은 이미 사라졌거나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담긴 구체적인 이미지를 소거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의도적으로 흐릿한 시야를 만들거나 과도하게 이미지를 확대하는 등 기존의 형상을 유추할 수 없는 단계가 되면 새로운 도형과 색, 그리고 그것들을 둘러싼 분위기만 남게 된다. 그 순간 작가는 선과 선 사이의 낯선 모서리 틈새에 자리 잡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화면으로 옮긴다.

한동안 비스듬히 본 장면에서 발견한 익숙하지만 낯선 부분들을 오랜 시간 들여다보았다면, 최근에는 우회하는 중에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을 전혀 다른 장면으로 치환한 순간, 그 이미지들이 새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작가는 분명 모든 그림 속 출발점이 된 구체적인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을 테지만, 표면 위에서 만난 선과 도형, 색과 분위기들은 두루뭉술한 풍경이 되어 지난 시간의 기록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이는 마치 우회적인 풍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하게 주목할 것을 제안하는 듯하다.³

현실에서 파생된 장면을 다룬 두 작가와 달리 허수연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을 여러 겹의 레이어 속에 감추어 표면 위로 드러낸다. 작가는 한지에 밀바탕을 그린 후 그 위에 종이죽을 덧붙여 가며 이전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덮어 나간다. 이러한 방식은 필연적으로 과거의 화면을 지워야만 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며, 양면적이고 모순적인 장면을 생성한다. 화면의 시작은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구상적인 장면에서부터였지만, 표면을 채워나갈수록 구체적인 장면은 사라지며 뚜렷하게 마주할 수 있는 시야를 제한한다.

이러한 작가의 작업은 본다는 행위를 통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매우 근소하며, 실제로 지각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현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화면 위 파편들이 쌓여갈수록 작품을

² 김상소는 2024 년에 작성한 「작가 노트」에서 장면과 장면 사이를 그리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장면과 장면이 아닌 것은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했다. 일반적인 매체들은 대체로 중요한 것 외에는 소거되고 축소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 이야기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쓸모가 명료하고, 희생을 잊지 않는다. (...) 삶, 영화, 만화의, 소설의 장면이 되지 못한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장면 사이를 상상하고 때로는 무시하며 내적으로는 어렵듯이 추측할 수 있지만, 실은 이에 대해 도무지 알 수 없다. 컷과 컷 사이를 상상하는 과정은 보이는 것 이상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좋은 연습이며 가장 회화적인 실천 중 하나이다.”

³ 윤혜진의 「작가 노트」(2024)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은 구체적인 형태가 두루뭉술한 풍경이 되는 과정을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한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할아버지의 니트에서 발견한 자주색, 붉은색, 파란색의 색 조합은 이리저리 그려지며 바닷가나 나무가 된다. 가을에 죽은 고양이의 무늬는 구름이나 수풀이 되고, 오래전 개의 말린 등은 곡선으로 남아 산등성이, 섬의 외곽선, 길의 경로로 그려진다.”

완결된 형태로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모든 면을 뚜렷하게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드는 모순적 현상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 너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결국 작업의 출발점이 된 구체적인 이미지는 사라지고 추상적인 이미지만 남게 되는 그의 작업은, 있는 그대로를 상상하고 바라볼 수 없는 동시대의 삶을 암시하며, 그로 인해 모든 곳에 전파되어 있는 내재적 불안감을 이미지화한다.⁴

이처럼 세 명의 작가가 지나쳐 왔거나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들만의 우회로는 특정한 결론을 찾아 나서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 획일화된 삶으로부터 탈주해 세상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해 보려는 과정에 가깝다. 본 전시는 이들이 도출해 낸 측지선을 감각하는 동시에, 측지선을 둘러싸고 있는 우회적 과정의 흔적들을 추적하며 감상할 것을 제안한다. 어쩌면 우회란 환기와 환유를 위한 수단이자, 평행하는 삶을 비틀 수 있는 몇 안되는 방법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글 맹나현(협력 기획)

작가 소개

김상소는 만화, 소설, 뉴스, SNS 등의 매체와 현실의 풍경을 통해 장면 속 이야기를 수집하고 이를 드로잉으로 기록한다. 색연필과 수채화 등 가벼운 재료로 그려진 드로잉은 캔버스로 옮겨져 그의 직관에 의해 무작위로 선택된 장면들과 결합한다. 작가는 캔버스를 이어 붙이거나 캔버스 안에 공간을 구획하는 등 여러 장면을 한 화면에 담아내는데, 일부 작업은 만화의 형식을 따르거나 영화 매체에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을 장치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시작점이 된 이야기의 맥락과 매체적 장치를 해체하며 비정형적인 형태의 화면으로 나아간다. 작가는 본인의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그림이 아닌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⁵ 이라고 설명한다. 결국 붓이 물감을 화면 위로 옮기는 순간, 두텁게 발린 물감을 긁어내는 등 캔버스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행위를 즐긴다는 그에게 어쩌면 장면은 그리기 위한 재료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김상소는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전공 석사 과정 중에 있다. 《Great Exhibition 2022: XXXX_XXX_XXXX_XX》(G Gallery, 서울, 2022)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픽션+미토콘드리아+시스템》(Hall1, 서울, 2024), 《Perigee Winter Show 2023》(페리지갤러리, 서울, 2023), 《나의 회화적 순간》(갤러리 소소, 서울, 2023), 《SWIPE》(THEO 갤러리, 서울, 2023) 등

⁴ 허수연은 구체적인 형상을 담고 있지만 점차 추상적인 형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본인의 작업에 대해 「작가 노트」(2024)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의 작업은 반추상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모든 현상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애매하며, 이는 모호한 형상으로 도출되기 때문이다. 모호하기 때문에 각 개인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프로세스를 지향한다. 불안이라는 감정도 우리가 정확히 어떤 건지 느끼지 못하기에 모든 작업에서 추상적인 형태가 나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⁵ 김상소, 「이야기를 그림하기, 그림을 이야기하기」, 2024.

그룹전에 참여 했다.

윤혜진에게 존재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현실에서 마주할 수 없는 장면을 직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를 흐릿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그는 그리는 대상의 세부 요소를 의도적으로 지우기 위해 흐릿하게 보거나 화면을 확대하는 등 온전했던 화면에 하나의 레이어를 씌운다. 이후 그 안에서 발견한 선과 색을 조합해 분위기와 새로운 형태의 윤곽선을 그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작업 과정은 과거의 흔적을 작가의 충동적 붓질과 순간적 선택으로 인해 여러 시간이 덧대어진 과거와는 전혀 다른 풍경을 만들어 낸다. 결국 그의 그림은 그린 이에게는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풍경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바라보는 이에게는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풍경으로 다가온다. 희미해진 대상과 사건이 스며든 여러 시공간이 뒤섞이며 나타나는 새로운 차원의 풍경은 지나친 순간을 흐릿하게나마 마주할 수 있도록 해주며, 자연스럽게 현재에 스며든다.

윤혜진은 홍익대학교 회화과, 불어불문학과 학사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평면조형 전문사에 재학 중이다. 《시린 눈의 옆면》(pokettales, 서울, 2024), 《척추와 손등과 드라이브》(갤러리 인, 서울, 2023), 《Gaze and Haze》(Light Little Walk, 서울, 2023)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CUPPY》(arc1 gallery, 서울, 2024), 《작은동물그림》(Gallery 175, 서울, 2022), 《BGA INDEX: OPEN STORAGE》(BGA Index, 서울, 2022)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허수연은 모든 현상의 다면적인 부분과 그로 인한 불안감을 가시적으로 드러낸다. 작가는 한지 위에 수채화와 유화로 밑바탕을 그리고 그 위에 종이죽을 덧붙여 레이어를 쌓은 후 오일 스틱이나 오일 파스텔로 작업을 마무리한다. 화면 위 층층이 쌓인 레이어는 이전의 화면을 덮어가며 드러나는 부분과 감춰진 부분이 공존하는 형상을 만든다. 종이죽을 덧붙일 땐 붓 등의 도구 대신 손을 활용하는데, 표면과 손이 직접 닿는 만큼 몸의 움직임이 화면 위로 바로 전달되어 더 극적인 생동감과 속도감을 전달한다. 작가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모든 것을 볼 수 없는 현실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호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개인의 적극적인 사고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하고자 한다.

허수연은 이화여자대학교 동양화과 학사를 졸업했다. 《Insecure MS.KIM》(2022, 옥상팩토리), 《FOLLOW THE RABBIT》(2021, FAS), 《Great exhibition 2019 : Retrieve, Recycle, Revive》(2019, G Gallery)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인공눈물》(2024, 뮤지엄헤드), 《Untalely》(2023, Tabularasa gallery), 《To be anything, To be nothing》(2023, 탈영역우정국), 《Temporary Landing》(2022, TINC), 《긴 지금 The Long Now》(2021, d/p)와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과 다수의 개인 컬렉션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